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에너지자원 수급 확대

작성자 : 강명구(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작성일: 2013년 9월 23일

■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 확보에 적극적

- 중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자원의 최대 수입국가로 부상
 - 이에 중국은 인접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매우 우호적인 중앙아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원유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천연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량 확대를 위해 가스파이프라인 및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1과 2를 건설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서부-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 2013년 9월 초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개최 기간과 회담 이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각 국가와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 확보

■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지분 인수, 정부간 MOU 체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입 확대

① 천연가스

- 중국은 기존의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파이프라인 1, 2 이외에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3과 4 건설을 통해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계획을 추진
- **카자흐스탄** : 2013년 4월 30일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PF(project financing) 사상 최대 규모인 중앙아시아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라인 C(Central Asia Gas Pipeline Project(Line c)) 성사
 - 파이프라인의 총 건설비용은 125억 달러로 중국국가개발은행(CDB)이 60인 7억 달러를 BOO방식으로 단독으로 금융지원

- 동 파이프라인 건설로 중국은 서부내륙 및 남부의 광조우 지역까지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은 천연가스를 고가에 안정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
- 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연간 200억m³,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100억m³를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임

중앙아시아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주요 내역

총 공사비	125억
구간별 운용회사 및 공사비용	① ATG(게다임-우즈베크 국경), 19.5억달러 ② BSG(베이네우-심켄트), 76.3억달러 ③ AGP(우즈베크·카작 국경-호르고스), 29.2억달러
구간별 건설 길이	①: 156.6km, ②+③: 1840km
보증기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자금지원	중국개발은행(CDB)
상환기간	15년
사업 운영방식	BOO(Build-Own-Operate)

주: ①, ②, ③은 아래 그림에 표시

중국의 Central Asia Gas Pipeline Project(Line c)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 경로



- 우즈베키스탄 : 중국과 제4의 중앙아시아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계획 수립
 -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합작회사인 ‘OOO Asia Trans Gas’ 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을 2014년 초에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추진

- 러시아 :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기간 중 9월 5일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MOU 체결

-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은 Henry Hub가격¹⁾과 무관하게 장기계약에 의거하여 공급할 것을 협약함
-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중국의 국가수석 시진핑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프롬 회장 알렉세이 밀러와 CNPC 회장 저우지핑(周吉平)이 협정서에 사인함

② 원유

- 카자흐스탄 : 중국은 세계 최대 유전 중의 하나인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의 지분 인수를 통해 원유 확보

- 중국의 CNPC는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와 카스피해 북부에 위치한 카샤간 유전의 지분 8.33% 인수 계약 체결
- 중국은 카샤간 유전의 컨소시엄 중 Conoco가 보유한 지분 8.33%를 50억 달러에 인수
- 카샤간 유전의 지분 비중은 Eni, KMG Kashagan B.V.(KMG 자회사), Total,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각 16.81%, CNPC 8.33%, Inpex 7.56%

■ 시사점

- 중국은 PF 또는 기존 광구의 지분 확보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늘릴 것으로 전망

- 최근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생산으로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기존가격 보다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할 것으로 전망

- 우리기업도 중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 필요

- 뿐만 아니라, 탐사·개발의 상류와 하류부문인 석유화학, 천연가스 탈황설비부문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1) 헨리 허브 가격(Henry Hub Price)은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지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배관망의 집결지 헨리 허브에서 결정. 헨리 허브가 1989년 뉴욕상업거래소(NYMEX)로부터 천연가스선물계약소로 선정된 이래 헨리 허브 가격은 천연가스선물의 기초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천연가스 가격지표로는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격과 독일의 수입가격인 러시아산 천연가스가격, 일본의 수입가격인 인도네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가격 등이 있음. 헨리 허브 가격과 NBP가격이 선물거래소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산 LNG 가격과 러시아산 천연가스가격은 매매계약을 통해 결정되는데 유가연동 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어 천연가스의 공급상황 외에도 석유시장의 수급여건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헨리 허브 가격과 NBP가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격과 인도네시아산 LNG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변동성도 작음.

※ 참고자료

- Китайская CNPC выкупит 8,33% акций Кашагана за \$5 млрд
- Узбекско-китайское СП построит 4-ю нитку газопровода в Китай
- CNPC может провести геологоразведку в Узбекистане вместо малазийской Petronas
- "Газпром" и CNPC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по условиям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в КНР